

# 마음의 소리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 ❁ vol.36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인권협)에서는 인권계발(啓發)의 일환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인권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하여 매년 '사카이시 인권협 소식·마음의 소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1 .....인권협이란?
- 2 .....심각화되고 있는 인터넷 따돌림 그 현황과 어른의 역할(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3 .....부라크(部落) 차별의 현황과 과제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 답신(答申) 50주년을 맞이하여~(전체 연수회)  
월드·카페 in 사카이 ~제대로 생각하자! 인권문제~(전체 연수회)
- 4 .....고령자 인권 (학구 추진위원 연수회)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 5~6... '나의 인권 메시지' 입선 작품 소개
- 7 .....인권 퀴즈 등



#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약칭:인권협)란?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인권협  
활동에 꼭  
참가해  
주세요!

인권협은, 부락(部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다양한 인권계발(啓發) 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롭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맹하고 있는 단체와 부회

- 인터 유스 사카이
- 사카이시 교육회
- 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의
-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이시 청소년지도원연락협의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 사카이시 보육회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과부 복지회
- 사카이시 민간보육원연맹
- 사카이시 민생위원 아동위원 연합회
- 사카이 상공회의소
-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클럽연합회
-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 사카이지구 행정상담위원회
-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 일반사단법인 오사카부 전수학교 각종학교 연합회
- 자유 도우와(同和)회 오사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제4학구 8지구 공립학교장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 지사 센보쿠 주거센터
- 부락(部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인권주간 가두계발 (街頭啓發)

## 인권협 임원을 소개합니다

- 회 장 카나마루 나오히로(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 부회장 쿠보 테루오(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부회장 야마구치 노리코(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부회장 타나카 히토시(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 부회장 시라모토 타다시(사카이시 보육회)
- 부회장 우에다 마사카쓰(사카이시립 교원장회)
- 부회장 나카가와 타카유키(부락(部落)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 부회장 타니 사치오(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 회 계 시바타 아즈쿠(사카이시 갱생보호여성회)
- 회 계 오구라 미즈코(사카이 인권옹호위원협의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구민 축제’ 계발활동 (啓發活動)



전체 연수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심각화되고 있는 인터넷 따돌림 그 현황과 어른의 역할

2014년 12월 3일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을 개최했습니다. 미디어 저널리스트인 와타나베 마유코 씨를 초대하여 '심각화되고 있는 인터넷 따돌림 그 현황과 어른의 역할' 을 주제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풍부한 취재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휴대폰·스마트폰이 '따돌림' 을 바꿨다

휴대폰·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터넷 따돌림에는, 익명성, 비대면성, 기록성과 보존성, 확산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 게시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 내용이 과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메일 등으로 즉시 답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의 표적이 되는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 따돌림의 수법

LINE(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무료로 통화나 메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으로 인한 비방 중상, 자기 메시지에 아무도 답신을 하지 않는 기록 무시,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그룹이 만들어지는 LINE 왕따라 불리는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따돌림은 따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려버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악질적인 수법으로는 성적 따돌림입니다. 따돌리고 싶은 상대의 외설적인 영상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과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려버리는 따돌림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되며,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 아이들을 지키는 대책

아이들에게 인터넷상에 나온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터넷 활용능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아동용 휴대폰, 스마트폰에는 필터링을 반드시 설치한다. 친구 사이에 이용하는 규칙을 정한다. 정보 윤리교육,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미디어의 영향

아이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매우 받기 쉽고, 따돌림의 힌트를 줄만한 프로그램, 따돌림 묘사의 편중, 폭력 표현이나 성적 표현에 관해서도 아이들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영향에 관해서는 먼저 어른이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신하는 내용이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라는 점을 제대로 스스로가 인식해서, 아이에게 전달해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 ■ 어른이 할 수 있는 것

인터넷 범죄에 관한 정보를 학교나 가정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평소 부터 이러한 정보를, 아이와 함께 공유하여, 아이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어른에게 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어른이 적극적으로 어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호소하기 편한 분위기를 어른이 만들어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른 사이에도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주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뭔가 그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방식, 두 번째는 따돌림을 당한 것은 그 아이가 약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방식, 세 번째는 따돌림을 당해 죽을 정도면 누군가에게 상담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방식입니다.

따돌림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 문제입니다. '나는 친구를 때리지 못한다. 때리면 친구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남기고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돌리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미숙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따돌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른이 따돌림을 당한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상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에게만큼은 보통 아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법입니다.

평소부터 어른이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아이에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나쁘지 않다, 따돌리는 쪽이 100% 나쁘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다, 따돌리는 쪽이 약하고 불쌍한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해도 당당해도 좋다, 숨김없이 말해도 좋다, 이런 점을 어른이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라크(部落) 차별의 현황과 과제

전체 연수회에서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 답신(答申) 50주년을 맞이하여~



##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 답신(答申)이란?

1961년 12월에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에 대하여 '도우와(同和) 지구에 관한 사회적 및 경제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대책'에 대하여 자문(諮問)하여, 1965년 8월에 동 심의회가 답신(答申)한 것입니다. 전문, 제1부, 제2부, 제3부,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문에서 도우와(同和)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적인 과제'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28일에 개최한 전체연수회에서는 '부라크(部落)차별의 현황과 과제 ~도우와(同和) 대책 심의회 답신(答申) 50주년을 맞이하여~' 라는 주제로 일반사단법인 부라크(部落) 해방·인권연구소 명예이사이신 토모나가 켄조(友永健三) 씨가 강연해 주셨습니다.

도우와(同和) 대책 심의회 답신(答申)은 1965년 8월에 나왔으나, 오랜 세월이 걸쳐서 토의하고, 확고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답신은, 부라크(部落)문제는 결코 부라크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부라크를 차별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므로 국민적인 과제라는 것을 지적한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 답신(答申) 제3부에서는 생활환경의 개선, 사회복지 증진, 산업·직업의 안정, 교육의 향상, 인권 옹호가 종합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그 중에서 인권 옹호라는 점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 차별 사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충분하지 못해 차별 실태 및 그 피차별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희박해져, 차별 그 자체가 중대한 사회악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차별철폐 기본 방책으로서 (1) 차별을 법률로 금지한다. (2)차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3)열악한 실태를 특별 조치로 개선한다. (4)차별 관념을 교육, 계발(啓發)로

부식시킨다. (5)독자성을 인정하고 공생한다. (6)차별철폐와 인권 확립을 곤란케 하는 풍습이나 법 제도를 고친다. 이러한 사항이 중요하다.

2015년은, 도우와(同和) 대책심의회 답신(答申) 50주년, 그리고 국제적인 조약 중에서 부라크(部落) 문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인종차별 철폐조약이 일본에 도입된지 20년이라는 큰 기념의 해다. 동시에 이 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일본 패전에서부터 70년이라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이라는 문제, 과거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제기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 방식은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영구적 평화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별은 잘못된 행위이며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해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영구적인 평화이다.

## 월드·카페 in 사카이

~제대로 생각하자! 인권문제~

제2부에서는 '월드·카페 in 사카이 ~제대로 생각하자! 인권문제~' 를 주제로 소그룹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논의를 깊이 하는 월드·카페 방법을 도입하여 참석자 모두가 즐겁게 토의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나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는가?'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이 유효한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는 '진심으로 인권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체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었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체험하거나 느낀 인권침해, 차별 에피소드를 찾아내서 서로 대화함으로써, 다양한 인권문제를 이해하였고,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학구 추진위원회 연수회에 대하여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 시내 각구마다 총 7회,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십니다.

\*학구 추진위원회란...학구 추진 대표자(학구 대표자) 및 학구 추진위원은 인권협을 구성하는 일원입니다. 학

구 추진위원은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단위 자치회장·학구내 각종 단체위원이나 각 학구내에서 인권계발(啓發)을 위해 열렬한 의욕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사카ishi 자치연합 협의회 학구 대표자께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 고령자의 인권 (치매에 관하여)

10월 22일, 니시 문화회관(웨스티)에서 '가벼운 치매와 초기 치매-감박 및 어버리는 현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모임' 오사카부 지부의 야마모토 히데키(山本秀樹) 의사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근래의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을 해소하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 또는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의사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령자에 대해 그 가족이 신체기능의 저하를 이유로 귀찮아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언동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 본인이 할 의지가 있는데도 그 의지에 반해 가사일이나 거드는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이 저하되더라도, 가정 속에서 소중한 일원으로서 인정받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 여겨서, 고령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은 고령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독거 고령자나 고령자로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말을 걸거나 어려울 때에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등, 지역 전체가 고령자를 뒷받쳐 주는 공조 사회 조성을 추진합니다.



##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래에 특정한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위협하거나, 차별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데모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라 불리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차별의식을 가지게 하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 결코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의식을 고쳐서 인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여 행동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나 습관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두가 살기 좋은 다문화 공생사회를 구축하여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문화의 꽃을 피웁시다.



# 나의 인권 메시지

## 입선작품 소개

### 달이 물을 운반한다

성인(중학교 야간 학급 3학년)

여러분 ‘달이 물을 운반한다’ 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과학 시간에 배우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조수간만은 달의 인력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그런가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산책을 위해 매일 밤마다 야마토가와(大和川) 강둑을 걷습니다. 어느 날 물이 역류하는 것을 보고, 문득 달을 올려다 봤습니다. ‘앗, 이것이구나’ 라고 실감했습니다. 그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저의 인생도 조금 되돌아볼까요?

저는 오사카에서 한국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아이 때부터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조선인은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역시 나는 한국인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감싸 주는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4학년이 됐을 즈음에는 급식비를 못 낼 정도로 집이 가난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급식비를 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 학교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드리고 싶어서 과친코 가게의 뒷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2백엔 정도 받았을까요? 개근상을 받고 싶어서 열이 나도 쉬지 않고 일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고철을 줍거나 벽돌 깎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말도 모

르고 일본에 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19살에 중매로 23살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한창 젊은 나이로 놀기만 하고, 월급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밖에서 아이가 생기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라’ 고 시어머니께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겨우 태어난 첫 아이는 3일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때만큼 슬펐던 적은 없습니다. 그 후에. 딸이 태어나 가족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시어머니, 조그마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서 가게 일·집안 일·자식 일로 손이 꼭 찼습니다. 그런 바쁜 나날 중, 어느 날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서 가게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장부라고 할 만한 건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부가 보고 싶으면 머리를 두 쪽으로 갈라 보라’ 고 말했으나 그게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정말 분했습니다.

60살이 넘어서 겨우 여유가 생겨서, 딸이 저에게 토노바바 중학교 야간 학급에 입학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제와서 이 나이에 따라 갈 수 있겠냐하는 마음에 결국 71세까지 결심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공부가 너무 즐겁습니다. 신문을 봐도 뉴스를 들어도 세계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밤에도 달님을 쳐다 보면서 공부할까요?



## 즐거웠던 릴레이

초등학교 2학년

저에게는 ○○ 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 군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반이 되었을 때 릴레이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릴레이 설명을 하시고 ○○ 군도 한바퀴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 군은 같은 팀이었습니다. 릴레이를 해보니 두바퀴 정도 차이로 졌습니다. 몇 번이나 연습해도 역시 졌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팀 아이들이 '○○ 군 때문에 지니까, 다른 팀으로 가'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상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릴레이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 군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처럼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생각해 냈습니다. '○○ 군 뭇까지 내가 빨리 달리면 된

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부터 매일 저녁에 달렸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 군 뭇까지 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상담해서 ○○ 군은 다른 친구들의 절반 정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운동회 날이 되었습니다. ○○ 군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달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우리 팀은 2등이었습니다. 항상 4등이었는데 이 운동회 날에는 다들 열심히 해서 2등이 되었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 군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 군도 열심히 달린 운동회 릴레이였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릴레이입니다.



## 따돌림

중학교 1학년

저는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얌전한 성격이었던 저는 친구들 분위기를 못 따라가, 쉬는 시간에는 남자 아이들한테 폭언을 당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만, 계속 참고 견디던 제 마음에 한계가 와서 학교를 가끔씩 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하고는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게 싫었습니다. 매일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한탄을 해도 외쳐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날 평상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서 어떤 만화를 읽으면서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공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따돌림과 맞서서 따돌림을 그만두게 하는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쉬기만 하면 절대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아.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또 남자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만해! 이제 싫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지금까지 놀려뒀던 남자 아이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면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씩 말을 걸거나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돌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괴롭혀서 좋을 리 없다. 그렇게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을 보고도 못본 체하는 사람도 따돌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하는 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싶다. 영원히 계속되는 따돌림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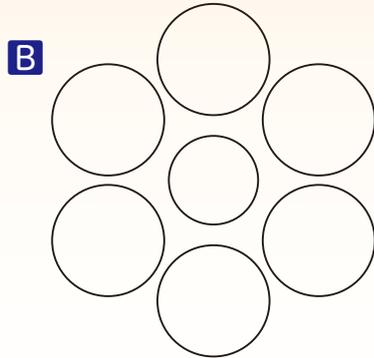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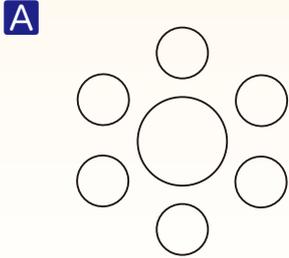


# 인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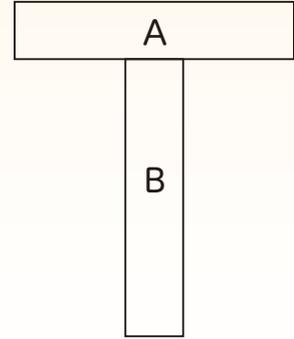
## 도전! 어떻게 보입니까?

(해답은 이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Q1.** 중심의 원은 어느쪽이 큼니까?



**Q2.** 아래 장방형은 A, B 어느쪽이 길니까?



최근 예로는 구청에, 구내에 도우와(同和) 지구가 있습니까? 이번엔 그쪽으로 이사하는데 부모님이 걱정해서 알아보고 싶다. '고하는 전화나, 사카이시와 도우와(同和) 지구의 분리를 희망

본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우와(同和) 대참심의회(답신(答申)이 나온지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도우와(同和)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이루어져 열악했던 주거환경은 일정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다. 는 내용의 문서가 시에 보내온 적도 있었습니니다. 이런 상황은 도우와 지구를 피하려는 '기피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이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과제로 인식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태도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차별은

# 인권 퀴즈

## 해답

**Q1.** A, B 모두 같은 크기 **Q2.** A, B 모두 같은 길이

어떻습니까? Q1에서는 A 쪽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Q2에서는 B 쪽이 길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사물을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시각이나 인식, 판단은 어떠한가? '억측'이나 '편견'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